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TEXTILE 파인애플, 바나나, 오렌지로 만든 섬유 등장 파리 프리미에비종, 생분해 신소재 관심 고조⁽¹⁾

지난 7월 2~4일 파리 프리미에비종(Premiere Vision)이 개최됐다. 이번에는 2개의 전시홀로 축소되어 개최되어 평소보다 다양한 새로운 축소가 었으나 지속가능성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전시된 제품 중에는 생물 기반 합성물, 즉 생분해성의 바이오폐이버로 만든 섬유 대체 섬유와 같은 지속 가능성이 높은 연구 제품이 포함 되어 있었다. 또 파인애플 잎 섬유로 만든 피나얀(Pinayam), 바나나 식물 섬유 또는 아바카(abaca)와 같은 자연 유래 섬유의 새로운 제안도 소개됐다. 셀룰로오스 섬유 중에는 시칠리아 오렌지 껍질에서 회수된 시트리아(Citrea), 면 섬유와 혼합된 코르크 잔여물을 재사용한 코르크텍스(Cork-a-Tex), 100% 종이로 만든 직물, 카세인으로 만든 우유 비스코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된 숲에서 얻은 목재 펄프로 만든 인공 섬유인 시셀(Seacell) 등이 새로운 소재로 주목받는 등 친환경 소재에 대한 바이어 관심도 높았다.

참여 소재 기업 중에서는 특수한 인디고 블루 염료로 염색된 코듀로이 소재를 선보인 이태리 소재 기업 TBM 그룹, 다양한 고급 재활용 면 직물, 캐시미어-면 혼합물 및 브러쉬드 효과 표면 직물 등을 선보인 이탈리아의 캐주얼-시크 직물 브랜드인 디스트로 패브릭스(Destro fabrics) 등이 있었고, 이블록스(Evlox)는 유기농, 재생면 및 재활용 색상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섬유를 특징으로 한 데님 캠프 컬렉션을 출시했다.



TEXTILE 美, 슬로우패션연합 조직⁽²⁾

섬유 폐기를 줄이고, 수선하고, 다시 입고

미국 의회 의원들이 패스트 패션 산업의 낭비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슬로우패션연합(Slow Fashion Caucus)을 결성했다. 슬로우패션연합은 캘리 핑그리, 마리 글루센캠프 페레즈, 시드니 캉라거-도브 의원이 설립했으며, 파타고니아(Patagonia), 쓰레드업(ThredUp), 리메이크(Remake), 더리얼리얼(The RealReal) 등의 지속 가능한 패션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목표는 섬유의 재사용, 수선, 재작업, 재활

용을 촉진하는 기후 친화적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슬로우패션연합 설립 행사에서 미국 핑크리 의원은 “우리는 패션 산업과 소비자에게 천연 자원 소비를 줄이고 섬유의 재사용, 수리, 재작업 및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옷을 빌리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폐기된 섬유를 수거하고 관리하는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내 지속가

능한 섬유와 직물 생산 및 가공을 장려하고, 급여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환경적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슬로우패션연합은 EU와 유사한 순환 경제 정책을 개발하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계획 중이다. 이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52% 감축하려는 정부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FASHION ‘더 느슨하고 더 편안하게’ 부드러운 남성복이 뜬다⁽³⁾

2025 S/S 남성 패션위크 유려한 테일러링 부상

내년 춘하 남성복은 올해 부상한 조용한 럭셔리에서 한층 더 느슨하고 편안한 스타일로 변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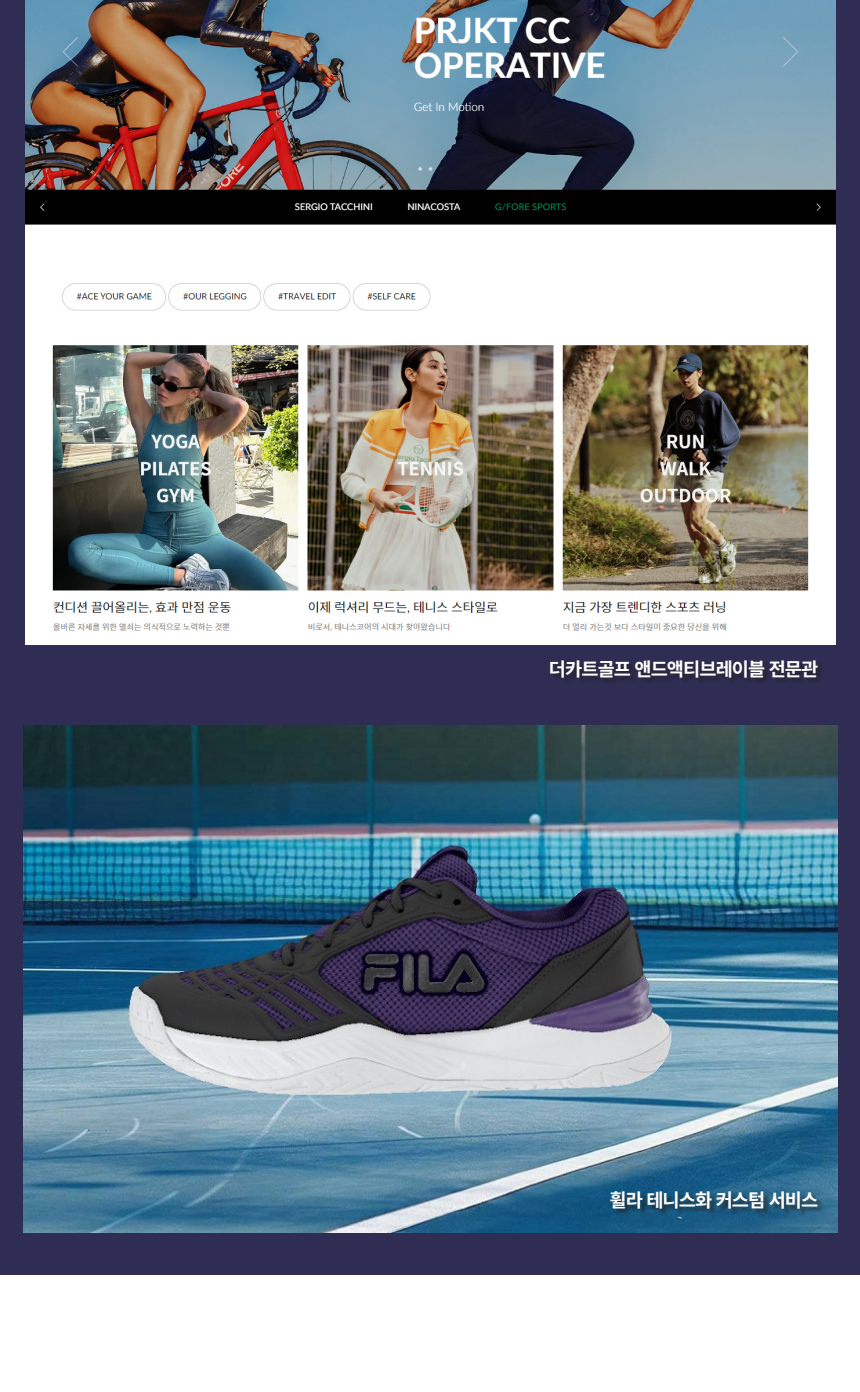
지난달 개최한 2025 춘하 남성 패션위크는 드리스 반 노튼이 은퇴 컬렉션 외에도 여러 브랜드가 참가해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밀라노 패션위크는 66개 브랜드, 파리 패션위크는 71개 브랜드가 참가했고, 국내에서는 한섬의 ‘시스템’, 풀리드의 ‘우엘마’, 솔리드웬트, 삼성물산의 ‘준지’, 송지오인터내셔널의 ‘송자우’ 등 5개 브랜드가 파리 패션위크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 춘하시즌 남성복은 부드럽고 유려한 테일러링이 주요 트렌드로, 볼륨감은 커지고 소재와 색상은 가볍고 경쾌해졌다. 캐시미어, 실크, 메쉬, 리넨, 시어사커 등의 소재와 스카이, 베이지 등 뉴트럴 및 파스텔톤이 주로 사용됐다.

이브닝웨어도 새롭게 떠올랐으며, 아웃도어와 스포츠웨어까지 융합된 스포티한 무드도

나타났다. 하의는 더 풍성해졌고 상의는 슬림해졌다. 아우터의 어깨와 카라의 부드러워졌고, 기장은 길어졌다.

가볍고 경쾌한 아이템으로는 ‘제냐’의 리넨 오버 셔츠, ‘다울’의 테일러드 버뮤다 슈트, ‘르메르’의 밀렉스 슈트와 오버코트, ‘아미리’의 더블 브레스티드 재킷, ‘이세이미야케’와 ‘릭오웬스’의 터보 코트, ‘더 로우’의 로난 재킷 등이 돋보였다.



TEXTILE 패션업계 MZ 타깃 새 먹거리 찾는데 집중⁽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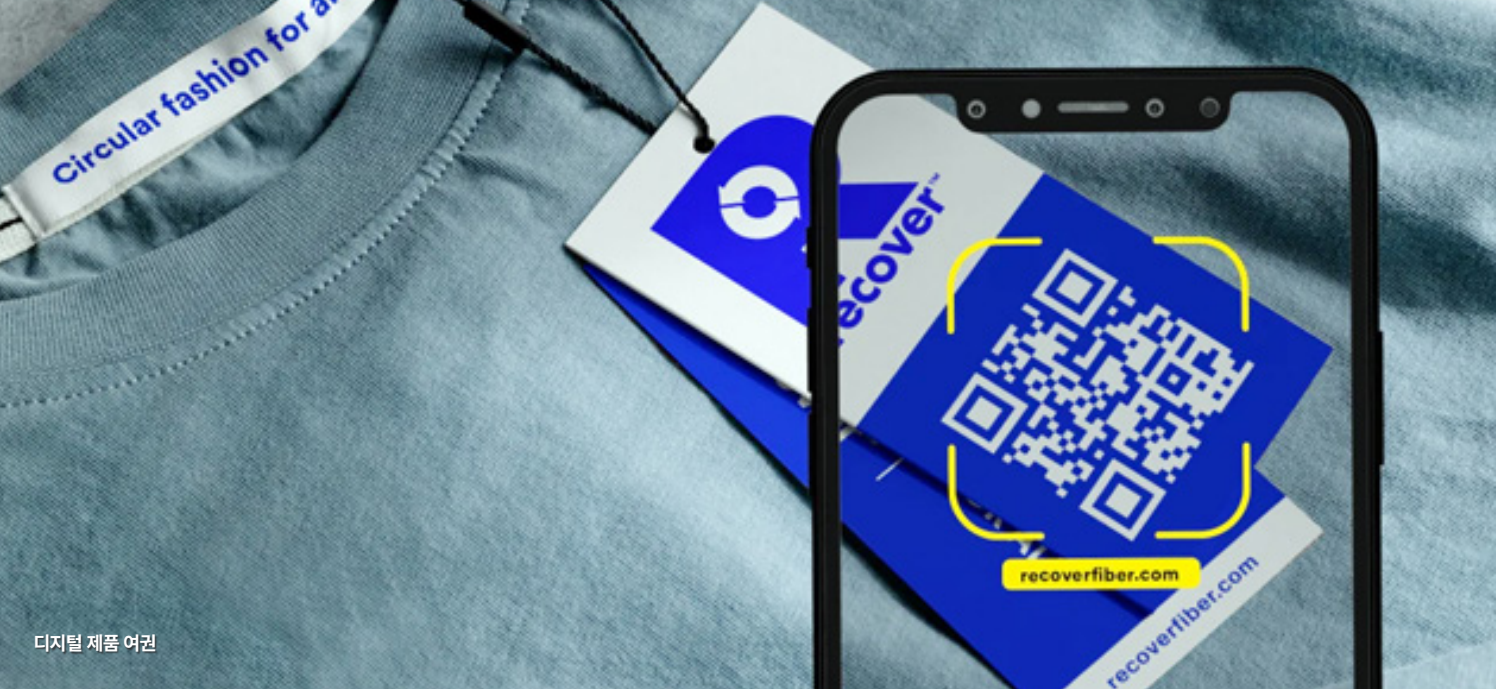
테니스, 수영 등 차세대 스포츠에 주목

패션업계가 골프에 이어 테니스를 차세대 스포츠로 주목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성장했던 골프 시장이 젊은 세대의 이탈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테니스 열풍이 거세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테니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월라는 1970~80년대 유행던 5화 연속 우승 신화의 주인공인 비온 보그를 후원하며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최근 업계 최초로 테니스화 커스텀 서비스 ‘커스텀 스튜디오’를 선보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맞춤형 테니스화를 제작할 수 있다.

코모프Fnc의 더카트골프는 테니스, 수영 등 새로운 운동을 즐기도록 하는 고객을 위해 ‘앤드액티브레이블’ 전문관을 런칭했다. 여기에는 애슬레저 브랜드 제스믹스, 스윙웨어 브랜드 데이즈데이즈, 스포츠웨어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 디아도라 등 55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향후 언더웨어, 리커버리웨어, 스킨케어 등 밀레니얼 카테고리도 확장할 계획이다.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도 테니스웨어를 런칭했다. 안다르의 2024 봄여름 테니스웨어는 자체 개발한 기능성 소재와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한 테니스 공을 넣을 수 있는 사이드포켓과 기능적인 디자인 디테일을 갖추고 있다.



FASHION TECH 625억개 디지털 제품 여권이 생성된다⁽⁵⁾

유럽연합, 포괄적 제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625억 개 이상의 디지털 제품 여권(DPP)이 생성되고, 소프트웨어 및 IT 수익이 15억 9000만 달러(한화 약 2조 199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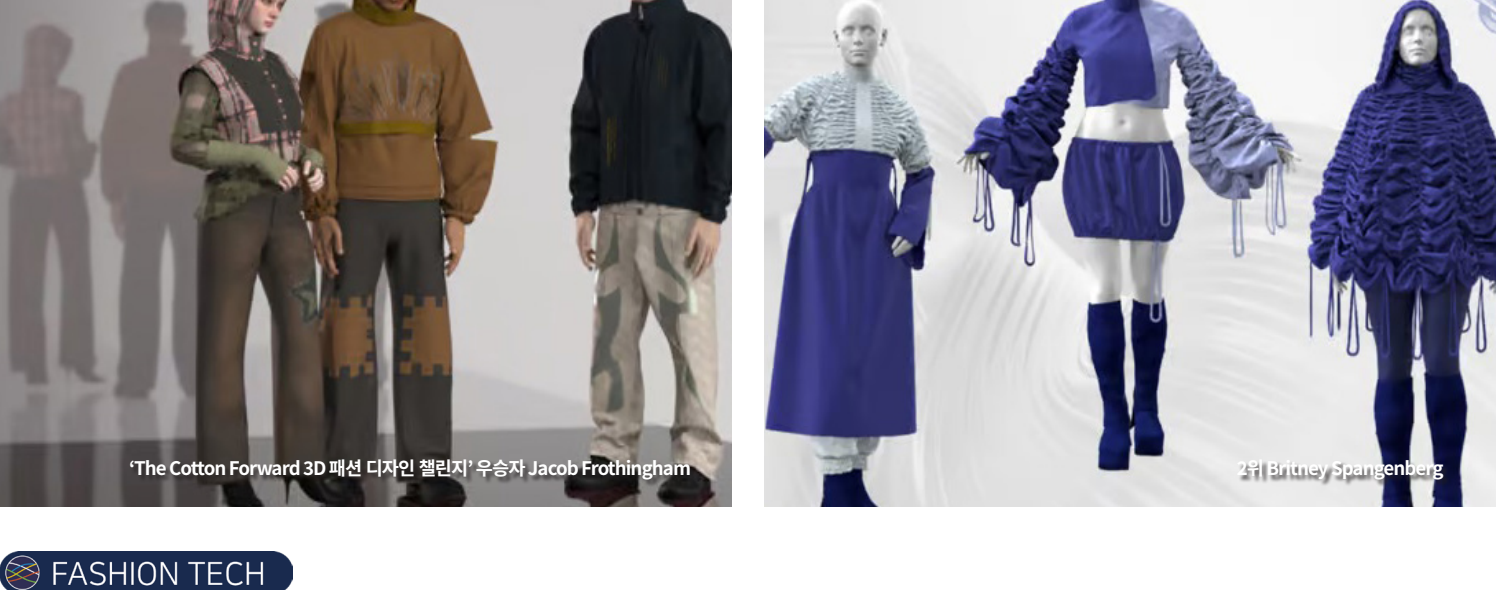
유럽연합(EU)은 DPP 도입의 선두 주자로서 포괄적인 제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DPP(Digital Product Passport)는 제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도구다.

지난 2022년 유럽연합이 예코디자인 규제안을 발표하며 EU 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DPP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양한 소비자 부문에서 계획되고 있지만, 특히 의류 부문이 주목받고 있다. 브랜드들은 DPP를 통해 과잉 생산을 줄이고, 규정 준수 여부를 검증하며, 제품의 진위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 인텔리전스 기업 ABI Research의 ‘디지털제품여권 시장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류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625

억개 이상의 DPP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5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소프트웨어 및 IT 수익이 투명성 중심의 이니셔티브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부터는 DPP 도입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의류에 DPP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후 북미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서도 DPP가 고급품 부문을 시작으로 대중 시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FASHION TECH 미국면협회, 면직물과 3D 기술 활용한 어워드⁽⁶⁾

‘Cotton Forward: 3D 패션 디자인 챌린지’ 우승자 발표

미국면협회(Cotton Incorporated)가 미디어 그룹 아트스레드(Arts Thread)와 협력하여 개최한 ‘The Cotton Forward: 3D 패션 디자인 챌린지’의 우승자를 발표했다.

새롭게 개칭한 이번 대회는 미래의 업계 전문가들이 면직물과 3D 기술을 사용하여 혁신적인 패션 디자인을 창출하도록 마련한 것으로 미국 전역의 27개 디자인 학교에서 출품작을 접수했다.

CottonWorks™ 플랫폼을 통해 접수받은 이번

대회에는 여행, 다용도성, 현대적 형태의 테마가 컬렉션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했고 학생들의 재능 및 창의성, 기술적 능력이 돋보였다.

5000달러 상금을 받은 1위 수상자는 버팔로주립대학의 Jacob Frothingham으로 현대적 정제성과 자기 표현을 탐구하는 매력적인 컬렉션으로 남성성과 여성을 위한 룩으로 맞춤 제작된 ‘True Delusion’이 수상했다. 또 2위는 패브릭 볼륨을 통해 아우터웨어를 강조한 ‘Making Outerwear a Statement’을 선보인 Britney

Spangenberg, 3위는 ‘The Urban Cotton Essentials Collection’을 출품한 텍스타 테크 대학의 Kailey Itri가 수상했다.

미국 내 학생 및 최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CLO3D 및 Brownwear와 호환되는 400개 이상의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면직물 파일 컬렉션인 CottonWorks™ 디지털 패브릭 라이브러리에서 면 디지털 패션 창작물을 제출하도록 도전했다.

1. THE SPIN OFF, Florence Rousson: "Premiere Vision will announce a new positioning strategy", 2024년 7월 4일
2. FASHIONUNITED, US congress launches Slow Fashion Caucus, 24년 7월 3일
3. 아메리칸뉴스, '더 느슨하고 더 편안하게...' 2025 S/S 남성 패션위크, 24년 7월 3일
4. 테일러링, "새 먹거리 찾기" 패션업계, 스포츠 카테고리 확대, 24년 7월 5일
5.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패션 디지털제품여권, 2030년까지 625억개 생성될 것, 24년 7월 2일
6. FASHIONUNITED, An inspiring vision for the future of cotton & design, 24년 7월 3일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문의 : 다이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소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